

朝鮮 金融組合史에 관한 研究

(理事構成을 中心으로)

崔 元 喆*

目 次

- | |
|-------------------|
| I. 序 論 |
| II. 理事人選의 條件 |
| III. 理事들의 活動狀況 |
| IV. 金融組合 擴大運動의 展開 |
| V. 結 論 |

I. 序 論

金融組合은 1907年 日本의 目賀田種太郎에 의해서 創設되었다. 目賀田氏는 日本의 大藏省 主稅局長 時代に 1904年 9月 韓國의 財政顧問으로서 韓國에 派遣되어서 稅制改革이라든가 貨幣改革을 단행하였다.

目賀田氏는 韓國의 財政顧問으로 就任함과 同時에 韓國에 存在하고 있었던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在來金融機構는 前近代의 이면서도 여러면에서 弊害를 가져온다고 해서 즉시 廢止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대해서 韓國農村의 村落民들로부터 激深한 反發을 招來하게 되었다. 그런데 當時에 目賀田의 속셈은 1910年 韓日合邦이 이루어지기전에 韓國經濟의 心臟部였던 金融的인 基盤을 確立하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해서 韓國의 傳統的인 在來金融機構를 順次的으로 廢止해 감에 따라서 日本이 實際적으로 韓國을 支配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農村의 村落地方을 中心으로 反日·反帝義兵 운동이 散發적으로 激深하게 展開되었다. 그것이 都市를 中心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村落社會 속에서 村落民을 中心으로 展開된데 대하여 注目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당시에 朝鮮統監部 및 目賀田種太郎氏는 事態의 深刻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植民地統治의 危機를 感知하면서도 朝鮮統監部の 指示는 村落社會까지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反日·反帝·義兵運動이 激深하게 전개 되는 가운데 事態의 추이를 예의 注視하고 있었던 目賀田種太郎이란 當時의 韓國財政顧問은 韓國農村의 村落社會에 깊숙히 침투해서 村落民들과 直接 對話하고 交渉을 進行하면서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해 갈 수 있는 朝鮮農村의 最前線에 重要な 組織이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1907년에 朝鮮金融組合을 設立한 動機가 되겠다.

韓國農村에 最初로 近代的인 金融機構를 設立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농민을 위해서 設立되었다기 보다는 韓國의 農村統治機關으로서 農村統治를 效率적으로 進행시키기 위함이었다.

本稿에서는 1907年 以後부터 日本의 金融組合 理事들이 한국 農民들을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金融組合을 운영하면서 韓國農民들을 어떻게 統治하면서 支配하였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아울러 植民統治의 特質과 性格을 究明하고자 한다.

II. 理事人選의 條件

1907年 朝鮮金融組合을 創立한 目賀田種太郎氏는 金融組合을 責任지고 운영해 갈 수 있는 幹部를 人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金融組合은 小農을 救濟할 目的으로 設立된 官設組合이었다. 다시 말해서 朝鮮總督府의 指示에 의해서 움직이고 朝鮮 農村最前線의 政治機關으로서 朝鮮總督府를 대신해서 金融組合에 의하여 농민통치를 시도한 高度의 「純政府下部機關」¹⁾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金融組合의 幹部構成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人選할 필요가 있었다.

當時에 金融組合의 理事選定 基準은

1. 教養이 있어야 할 것
2. 純粹해야 할 것
3. 學問水準이 높아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²⁾

初期에 金融組合의 理事는 처음으로 30名이 日本으로부터 과견되었다. 이 30名 全員이 東洋協會 專門學校(現在 拓殖大學) 出身者들이었다. 이와 같이 初期부터 金融組合은 高學歷者 理事들을 採用하기 시작하였다. 初期뿐만 아니라 金融組合 理事는 항상 高學歷者를 採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高學歷者의 理事를 人選하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金融組合의 경우에는 朝鮮農村 地方에 있어서 小農救濟가 目的이었는데

1) 金森襄, 「日帝下 朝鮮金融組合과 農村經濟에 미친 영향」(高麗大學校 「史叢 第十五」, 1971年) p. 378.

2) 山根憲, 「金融組合發達の 特殊性和 新體制」(金融組合連合會教育叢書 第七輯, 1940年) p. 6 參照.

데 그러나 小農救濟의 뒷면에는 小農統治란 政治的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反日·反帝의 義兵鬪爭을 鎮靜시켜서 農民을 원만하게 잘 統治하기 위해서는 金融組合 理事는 高學歷者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山根謙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理事의 採用方針을 定한 目賀田種太郎 顧問은 이것을 當時의 桂 總理大臣에게 이야기하여 큰 贊意를 얻었다. 同時에 自己는 東洋協會專門學校를 創立해서 東洋 各地에 있어서 活動하는데 적합한 人物養成에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이 學校 卒業生을 採用하는 것이 어떠한 권유가 있어서 目賀田 顧問은 該同校 卒業者 30名을 採用하였다. 따라서 金融組合의 初期 理事는 全員 同學校의 卒業生일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教育方針으로서 在學中에는 적어도 二年 以上은 同校 寄宿舍에 수용해서 起居를 같이 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 30名の 젊은 理事는 상호간에 잘 아는 關係였기 때문에 組合事業에 對한 共同的 責任感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同時에 組合相互間의 連絡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總員一心 總力을 發揮하게 되었다.」³⁾

桂太郎이 創立한 東洋協會 專門學校(現在 拓殖大學)는 東洋 方面의 植民地 開拓에 적합한 人材를 育成하고 있었다. 게다가 在學中에는 同校의 寄宿舍 生活를 영위하면서 植民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開拓할 수 있을까 하는 植民地 開拓을 수반한 精神的인 訓練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東洋協會 專門學校 出身 多數를 金融組合 理事에 採用하게 되었다는 것은 重要的 意味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東洋協會 專門學校 出身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開拓을 수반한 日本의 官僚機構의 最末端에 位置해서 植民地 開拓의 선두주자로서 鬪爭을 展開해 갔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朝鮮農村의 最末端 村落地方에 교양이 풍부하고 高學歷者인 理事를 任命하게 되었는가가 重要的 事項이 되겠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朝鮮 植民地 統治를 成功的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는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統治의 命運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當時에 朝鮮 殖産銀行의 會長이었던 三島太郎은 다음과 같이 論議하고 있다. 「下層階級의 生活狀態를 改良해서 그 思想을 健全하게 하는 것은 國家的 社會 改良事業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그 경제 상태의 改善을 急선무로 하고 따라서 金融 조합의 制度에 重大한 意義를 인정해서 이러한 研究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⁴⁾

이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의 國策遂行으로서의 植民地 統治를 成功的으로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빈곤한 농민들에게 어느 程度의 糧을 부여하지 않으면 小作爭議라든가 反日·反帝義兵 鬪爭은 中止되지 않고 混亂을 招來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小農들이 生活狀態의 改善없이 는 식민지 통치를 順調롭게 進행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다.

3) 山根謙, 前掲書, p.9.

4) 中島司, 「三島太郎氏 記念誌」(田町印刷所, 1923年) p.218.

또한 三島氏は「金融組合 및 同連合會 理事 諸君에게 바란다」라는 理事들에 대한 講演에서 「이 점으로 보더라도 小農業의 獎勵援助는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들의 業務는 實로 一大 國家的 意義를 갖는 것으로서 그 責任도 重大한 것이지만 同時에 매우 趣味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諸君과 함께 많은 研究努力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즉 朝鮮殖産銀行과 金融組合은 두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그 設立의 動機는 다르지만 같은 目的에 의해서 設立된 것으로서 二者가 具備되어서 비로서 全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個個로 獨立되어서는 충분히 活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제군과 우리들은 一心同體가 되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⁵⁾라고 말했다.

환언하면 國家的인 目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군은 분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朝鮮殖産銀行과 金融組合이 지향하는 目的은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相互 設立한 動機는 다르지만 國策을 수행하는 方向은 같은 것이고 부여된 使命도 같은 것이다. 朝鮮殖産銀行과 朝鮮金融組合이 힘을 합쳐서 같은 方向으로 나아가게 되면 식민지 통치의 成果를 크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朝鮮殖産銀行은 都市 商工業層들에게 貸出을 행하면서 上流階層들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반면에 金融組合은 下層民들을 對象으로 地方 村落民들에게 貸出을 해주면서 농민들을 장악해야만 했다. 이러한 意味에서는 朝鮮 食산은행과 금융조합이 國策을 수행하는 目的은 같은 것이었고 使命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金融組合의 理事는 東洋協會 專門學校(現在 拓殖大學) 卒業生 30名을 선발해서 採用한 것이 理事採用의 시작이 되었다. 그 후에 東京商大·神戶商大·大阪商大·京都大·京城帝大·東京大·九州大 등의 出身者가 理事로 採用되었다. 또한 神戶·長崎·山口 등의 高商 出身도 採用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官公 私立의 各大學出身도 서서히 採用하게 되었다. 한국인에게도 일단은 理事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지만 그러나 한국인이 理事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Ⅲ. 理事들의 活動狀況

當時에 韓國의 農村地域은 交通手段이 未發達한 상태에서 文化水準도 낮은 가운데 게다가 醫療施設도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僻村 地域에서 最末端 農民과 苦樂을 함께 하면서 所謂 濟民事業으로서 韓國 農村振興運動에 活動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을 내던질 각오로 임하지 않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5) 中島司, 前掲書, pp. 229-230.

서 理事들은 어떠한 僻村地域에도 命令만 내려진다면 부임할 勇氣가 없으면 안되었다. 自己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부임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마치 兵士들이 戰地로 떠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해방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忠誠心을 바치면서 식민지 통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苦戰奮鬪했다. 理事들은 戰前에 日本帝國主義의 큰 思想의 흐름에 휩쓸려서 자기들의 組織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時代이건 人間生命의 尊嚴性을 重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日本의 歷史를 되돌아보면 가장 尊嚴視되어야 할 人間의 生命을 組織의 道具·國家의 道具와 같이 利用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존엄시되어야 할 人間을 희생시키면서 組織의 發展이라든가 國家의 發展이 어떤 意味를 가져오게 되겠는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다.

朝鮮金融組合 理事들도 이러한 人間의 群像들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日本帝國主義 時代라고 하지만 人間輕視의 風潮가 만연되어 있던 時代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朝鮮 村落地域에서 金融組合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朝鮮 農民과 意思疏通을 韓國語로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젊은 理事들은 東洋協會 專門學校 時代に 朝鮮語 訓練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朝鮮 農民들과 意思疏通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들이 부임하게 된 장소는 거의 朝鮮農村의 村落地方이었기 때문에 「方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思慮된다.

秋田 豊氏は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注意해야 하는 것은 諸君이 東洋協會의 關係者로서 特히 招聘된 것은 韓國語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충분히 掙得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더 分發해 주기 바란다」⁶⁾

東洋協會 專門學校 學生들은 全員 寄宿舍 生活를 하면서 植民地 開拓에 수반한 여러 나라의 言語를 습득하였다.

여기에 目賀田顧問의 訓示를 紹介하고자 한다.

「諸君은 금번 當國에 傭聘되어서 각 지방에 부임됨에 따라서 從來에 이미 本部員에 부여한 訓令이 있는데 諸君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朗讀한다.」⁷⁾

政府 財政顧問이 訓示事項

1. 政府 財政顧問의 部員으로서 韓國財務를 지도할 취지를 忘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一般 公衆들에게 외우도록 할 것
2. 지도는 반드시 예의 바르게 진행할 것

6) 秋田豊, 「朝鮮金融組合史」(朝鮮金融組合協會, 1929年) p. 99.

7) 秋田豊, 前掲書, p. 95.

3. 日本帝國과 韓國은 國情이 相異한 것을 觀察하고 오로지 事實을 고찰해서 言論에 알린다.
4. 財政과 行政의 兩方面의 範圍를 考察해서 職務의 限界를 초월하지 말 것
5. 一言一行을 조심할 것
6. 一般民衆의 信用을 얻으려고 努力한다.
7. 内外 諸官憲은 勿論이고 한 個人에 대해서도 日常折衝을 원만하게 할 것⁸⁾

要는 韓國 財務를 지도할 立場을 잊지 말고 國情이 다른 異國의 實情을 把握하고 결코 일반민중과 충돌할 것이 아니라 民衆의 信用을 얻어서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細心한 訓示를 부여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이 靑年 理事들은 目賀田財政顧問의 切實한 訓示에 感動하고 戰地로 떠나는 兵士들과 같이 鬪志力을 불태우면서 悲壯한 覺悟로 各各 朝鮮 農村의 任地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日本帝國主義의 國策遂行을 위해서 또한 자기들의 生活을 영위하기 위해서 文化의 相違에 의한 生活慣習이 다른 곳에서 山間僻地를 步行하면서 金融組合에 대한 큰 疑惑을 품고 있었던 農民들에 대한 朝鮮總督府의 解說者로서 農事改良에 대한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日本의 新貨幣를 가지고 韓國의 舊貨幣(葉錢·白銅貨)와 交換하면서 情熱的으로 순회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信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秋田 豊氏에 의하면 「理事들 연령은 겨우 22歲, 23歲, 24·5歲의 靑年이었다. 게다가 出征軍과 같은 意氣를 가지고 暴徒 등은 眼中에도 없었고 惡人을 說得해서 善人으로 만들고 자기편으로 만들 정도의 勇氣의 所有者였다. 또한 白日下의 모든 迫害, 모든 危難을 몸으로 받고 偉大한 信念에 終局的으로 勝利를 거둔 宗教家와 같았다.」⁹⁾라고 피력하고 있다.

朝鮮 金融組合의 初期 理事들은 學生時代에 東洋協會 專門學校에서 植民地 開拓精神과 方法을 몸에 익히고 韓國에서의 目賀田의 訓示에 責任을 느끼고 모든 苦難을 克服하면서 日本帝國의 興隆을 위해서 皇國의 戰士와 같이 험난한 길을 開拓해 나갔던 것이다.

日本帝國主義를 위해서 一身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열적으로 鬪爭에 임했던 것이다.

朝鮮 農民들로부터는 농민을 收奪해서 土地를 착취 당하거나 앓을까 하는 의아한 눈으로 늘 보고 있는데 朝鮮總督府 解說者로서 그와 같은 韓國民의 의심을 풀려고 全力投球해 갔다.

그러나 金融組合 理事들의 韓國에서의 대우는 꽤 많은 편이었다. 理事들의 月給은 높은 편이었다.

金融組合의 逸話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金融組合의 設立에 대해서는 當時에 극히

8) 秋田豊, 前掲書, pp.95-96.

9) 秋田豊, 前掲書, p.10.

빈약한 상태에 있는 韓國政府의 財政으로부터 一組合 一萬圓씩 아마도 現金 45圓에 상당하는 基本金과 理事通譯 等の 俸給手當 等の 經常費까지 補助하고 있는데 이 젊은 靑年들이 과연 원만하게 組合經營을 하고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런지 근심스럽기 그지 없다。」¹⁰⁾

初期의 金融組合의 設立費用에 대해서는 當時에 매우 財政事情이 빈약한 가운데 韓國 정부가 이것을 전부 부담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理事 賃급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理事의 通譯 費도 지불하고 있었다.

日本 理事들에 대한 통역은 東洋協會 專門學校 學生時代に 朝鮮語를 習得하고 있었기 때문에 理事들에 대한 통역은 基本的으로는 不必要했다. 그러나 그들의 朝鮮語는 주로 標準語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서투른 標準語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理事들의 活動舞臺는 山間僻地인 村落地方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理事들에 대한 通譯이 必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通譯費도 韓國정부가 부담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日本 理事들을 選定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

金融組合의 理事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當時에 東洋協會 專門學校를 갓 졸업한 22~23歲의 靑年들을 日本도 아닌 朝鮮에서 金融組合 理事로 採用하게 된 점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專門學校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理事로 採用한 事實이라 하겠다. 이러한 事實에 대해서는 韓國인으로부터 대단히 非難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理事 임명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校를 갓 졸업한 22歲의 靑年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組合員이 高利의 돈을 빌려서 그것을 組合에 預金하는데 있어서는 幣害가 많다는 비난·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要는 굳은 信念下에 前後左右를 돌아보지 않고 所信을 實行했다.」¹¹⁾

이들 靑年理事들의 任命에 대해서는 當時 朝鮮의 常識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程度였다.

제아무리 帝國主義의 統治時代라고 하지만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金融機關의 理事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世界에 있어서 오랜기간 豊富한 經驗을 쌓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金融기관에 理事程度가 되려고 하면 그 方面에서 오랜기간 經驗을 쌓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常識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理事 採用方法은 時代의인 狀況을 감안하더라도 韓國인을 根本적으로 無視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事實은 韓國뿐만 아니라 日本 金融機關이 취해온 人事慣例를 보더라도 적어도 그 方面에서 20年 以上 경력 없으면 理事로 될 수가 없었다.

10) 「金融組合逸話集」(金融組合叢書 第六, 朝鮮金融組合協會, 1931年) pp. 101-102.

11) 「朝鮮金融組合逸話集」前掲書, p. 100.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專門大學을 갓 졸업한 22~23歳の 젊은 青年들을 從來의 慣例를 깨고 이렇게 해서 破格的으로 理事로 採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理由가 있었지만 第1次的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日本帝國主義에 忠誠을 바치면서 金融組合에 부여된 중대한 任務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第2次的으로는 軍隊의 兵士와 같은 役割을 수행하도록 하는 任務가 부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그들의 活動中心舞臺는 村落地方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當時에 村落地方은 反日·反帝國主義의 義兵運動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었고 그야말로 殺伐한 情況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青年 理事들은 日本帝國主義의 國策遂行이란 次元에서 金融組合을 設立하고 擴大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나마도 交通手段도 매우 나쁘고 道路다운 道路도 정비되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理事들이 組合을 擴大해 가는데는 보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交通 수단이 極히 困窮한 상태였다.

IV. 金融組合 擴大運動의 展開

金融組合을 本格的으로 擴大해 가기 위해서는 步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遠거리 地方은 海路를 利用해서 目的地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때로는 短거리는 步行으로 때로는 승마에 의해서 目的地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交通手段이 不便하였고 게다가 反日鬭爭을 展開하고 있었던 戰鬪的인 義兵들은 방방곡곡에 출현하는 時代였다. 따라서 開拓精神이 없이는 도저히 組合擴大 運動을 展開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當時를 回顧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治 40年 말부터 42년까지 暴徒가 빈번하게 出沒해서 피해가 참담해지고 光州附近은 暴徒의 巢窟이었다. 그 해 5月 2日 池田 農業技手와 書記 3名으로, 同方面으로 가게되는 財務담당과 同行해서 出張할 때에 白晝暴徒의 狙擊을 받아서 겨우 虎口를 脫出하게 되었고 組合의 主旨의 普及은 極히 困難하고 언제나 평온하게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萬事가 이와 같이 意外의 것 뿐이었습니다.」¹²⁾

當時에 光州地方의 殺伐한 情況을 말해주고 있다.

當時에 村落地方에는 이와 같이 兇惡한 狀況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韓·日合邦 反對·貨幣改革 反對·金融組合設立 反對 鬭爭이었다.

日本帝國主義의 官憲資料에는 義兵에 대해서 暴徒라고 規定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暴徒와

12) 秋田豊, 前掲書, p. 103.

같은 性格의 所有者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暴徒가 아니고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支配에 반대해서 鬪爭을 展開했던 義兵들이었다.

이와 같이 金融組合의 理事들이 兵士로 비유한 根據가 이러한데 있었다.

그와 같이 交通手段이 整備되어 있지 않은 깊은 시골에 게다가 義兵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장소에서 日本帝國主義의 國策수행자로서 自身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朝鮮 植民地統治의 命運이 걸려있다는 認識下에서 모든 受難에 건디면서 組合擴大 運動을 展開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理事들은 精神을 武裝하고 무기를 소지해서 義兵들과 戰鬪를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信仰을 깊게 믿는 殉敎者와 같은 기분으로 鬪爭을 展開하였다.

朝鮮金融組合 逸話集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젊은 이들은 별도로 事務的인 練習도 받지 않고 地方金融組合 設立委員의 辭令을 받고 意氣昂揚하게 各地의 所定の 任地로 향하였다. 當時 地方의 交通便益은 도저히 想像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江原道 江陵으로 赴任할 때만 하더라도 京釜線을 타서 釜山에 도착해서 道路 元山¹³⁾을 迂回하고 元山에서 陸路 江陵으로 갈 정도였다.

火賊이라고 稱하는 草賊各地에 橫行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明治 40年(1907年) 7月 韓國軍隊 解散後에는 暴徒隨所에서 蜂起하여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에 많은 組合設立委員들은 피스틀을 차고 任地로 들어가는 상태였다.」¹⁴⁾

金融組合 理事들이 피스틀을 소지하고 組合擴大 運動을 展開하게 된 것은 意外的 일이었다.

당시에는 江原道 江陵에 금융조합을 設立하는 경우에 陸地에 가까운 道路를 通過하지 않고 굳이 釜山까지 가서 釜山에서 北韓의 元山까지 다시 元山에서 강릉까지 말에 의하지 않으면 徒歩로 도착하였으니 대단히 먼거리라고 할 수 있다.

理事들은 當時에 京城(現在의 서울)에 집결해서 各地方에 配置되었는데 赴任地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원거리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원거리를 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交通手段이 거의 整備되어 있지 않았던 理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陸路는 방방곡곡에서 義兵蜂起가 激深하게 展開되고 있어서 대단히 殺伐한 情況이었기 때문에 身體의 危險을 느끼게 되고 比較的 安全한 海路를 選擇하였다고 생각된다. 義兵들로 부터 海上에서 습격당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金融組合 逸話集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金融組合 設立委員들은 各地方에 있어서

13) 元山은 日本帝國時代에 工業中心地로 널리 알려졌다.

14) 「朝鮮金融組合逸話集」 前掲書, p. 103.

組合設立을 위해서 피스톨이라든가 日本刀를 몸에 차고 徒步라든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순회하고 組合員 募集에 있어서 數次 組合의 設立을 보기에 이르렀다。」¹⁵⁾

이와 같이 戰鬪兵士처럼 完全武裝해서 組合擴大를 위해서 村落의 길을 헤매었던 것이다. 朝鮮金融組合의 理事들은 日本의 高學歷者들 뿐만 아니라 戰鬪兵士였다는 根據가 잘 立證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은 義兵들과 戰鬪를 展開하면서 組合擴大 運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青年들을 왜 理事로 採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疑問도 解明되었다고 본다. 만약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면 저와 같은 激務에 시달리면서 일을 成就하여 간다는 것은 精神的·肉體的으로 무리한 것으로 思慮된다.

金融組合의 理事를 경험한 重松高昇修씨의 「나의 足跡」에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大正 8年(1919) 3月 5日 陽德分遣所에서 一發의 銃聲은 나를 쏘아트리고 나를 평생 不具의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 가을에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저녁노을에 나는 통증이 심했고 良識이 없는 사람들에게 不具라고 조롱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나 明月의 밤에 조용히 默想해서 보니 내가 貫通銃傷을 입어서 나의 生命이 위험한 상태에서 절망할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死地로 부터 救出해 준 恩人 「進」씨의 友情을 생각하면서 또한 자기도 상처를 입으면서 나를 걱정해준 崔씨의 眞실을 생각하면, 또한 모든 書記의 일을 다해준 「洪」君의 變함이 없는 情誼를 생각하면 나는 人間으로서 感激의 血潮가 躍動하였다. 慈惠醫院의 院長도 그 온화한 얼굴로 미소지으면서 나에게 대하여 당신은 참으로 再生했다고 말했다.」¹⁶⁾

重松씨가 銃擊을 입어서 絶命의 危機에 直面한 瞬間 進씨, 組合員의 崔씨, 書記의 洪씨의 민첩한 응급조치에 의해서 救濟되었다는 事實에 대해서 매우 感激하고 生命의 躍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대단한 美談이 아닐 수 없다. 支配者와 被支配者의 關係였지만 組合에 따라서는 理事와 組合長과 組合員間에 따뜻한 人間關係로 맺어져 있었던 것이다. 素朴하고 순수한 한국 농민들의 民族을 초월한 誠實한 人間愛에 대한 感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理事의 月給은 높았던 것이 事實이다. 「理事의 俸給은 約 五十圓 乃至 六十圓인데 組合員의 負擔으로 되어 있다.」¹⁷⁾ 이 青年 理事들의 월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韓國官吏들의 월급이 10圓이었다. 그리고 白米 1斗는 5.60錢이었다.

그들에게는 住宅도 부여되고 있었고 多額의 出張費도 支給되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 관리들에 비하면 젊은 理事들에게 支給되고 있었던 월급은 높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50~60圓은 거액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15) 「朝鮮金融組合逸話集」 前掲書, p. 103.

16) 「朝鮮金融組合逸話集」 前掲書, p. 262.

17) 山根菴, 「金融組合概論」 (朝鮮金融組合協會出版, 1932年) p. 46.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월급만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日本帝國主義의 國策遂行을 하기 위하여 한 몸을 희생하면서 鬪爭하고 있었던 理事들의 경우에는 月給보다 重要한 것은 植民地 統治의 成功여부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金融組合 理事들의 學歷別 現況을 고찰하기로 한다.

<表 1> 金融組合理事의 學歷別 現況

大 學		高 商	專 門 大 學	其 他
帝大·商大	私 大	高 商	其 他	
京大 11(日)	拓大 100(日99,朝1)	京城 79(日67,朝12)	京城法專 34(日1,朝33)	農林業 31(日7,朝24)
京城大 10(日8,朝2)	早大 37(日32,朝5)	山口 33(日25,朝8)	高等農林 7(日5,朝2)	中學校 27(日25,朝2)
東大 6(日)	明大 27(日20,朝7)	長崎 15(日)	京城普專 6(朝)	商業 12(日8,朝4)
東京商大 5(日1,朝4)	慶大 15(日)	大分 13(日)	東京外國語 4(日)	師範 10(日9,朝1)
神戶商大 3(日)	日大 14(日11,朝3)	神戶 9(日5,朝4)	東北學院專 4(日)	一露協會 7(日)
九州大 2(日)	中央大 12(日9,朝3)	福島 8(日7,朝1)	延禧專門 2(日)	陸士 4(日)
大阪商大 1(朝)	法政大 6(日2,朝4)	松山 7(日6,朝1)	其他 4(日3,朝1)	高等學校 2(日)
	立教大 4(日2,朝2)	高松 6(日)		其他 18(日6,朝12)
	關西大 4(日)	高岡 4(日)		不明 58(日34,朝24)
	同志大 4(日)	和歌山 4(日)		
	立命大 3(日)	大倉 4(日)		
	其他 2(日1,朝1)	名古屋 3(日)		
		同志社 2(日)		
(合計)		其他 8(日7,朝1)		
38(日31,朝7)	228(日202,朝26)	195(日168,朝27)	61(日17,朝44)	169(日102,朝67)
(5.5%)	(33.0%)	(28.2%)	(8.8%)	(24.5%)

出所: 派形昭一,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研究』(早稻田大學出版部, 1985年) p. 212.

注: 拓殖大學에는 東洋協會專門學校를 포함한다. ()內的 日·朝는 日本人·朝鮮人別을 나타낸다. 調査된 理事總數는 691名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融組合의 理事들은 前述한 대로이다. 어떻게 해서 植民地 朝鮮의 最末端 村落地域에 이만큼 高學歷者를 配置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만큼 朝鮮 總督府가 朝鮮 農村地方의 村落統治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日本帝國主義의 朝鮮統治와 關係해서 朝鮮金融組合이 重大한 役割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朝鮮 植民地 支配와 關連해서 朝鮮金融組合을 度外視하고 論할 수 없다는 것은 明瞭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에 朝鮮總督府는 都市의 知識層 및 支配階級은 意外로 包攝하기가 容易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포섭된 사람들은 한국인이면서도 日本帝國主義를 대신해서 支配階級 또는 地主·兩班階層들에게 皇民化 教育을 實施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皇國에 忠誠하고 협력하여 간다면 所謂 恩賜金을 얻을 수 있었고 生活도 비교적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었다.¹⁹⁾

그 後에 日本은 淸日戰爭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점차적으로 朝鮮 朝廷을 脅迫하게 되었고, 露日戰爭後에는 買收와 脅迫을 驅使해서 朝廷을 事實上 그들의 支配下에 넣게 된다.²⁰⁾

비록 一部이기는 하지만 歷史를 올바른 方向으로 主導하고 良心과 信念을 武器로 해야 할 支配階層이 타락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괴로워하면서 痛恨의 歷史를 방황하는 民衆들에게 힘차게 살아가는 희망과 勇氣를 부여하면서 歷史를 올바른 方向으로 주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政策에 協力하고 活躍하면서 一部の 農民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意外의 일이었다.²¹⁾

거기에 比해서 末端 農民階層들은 어찌했는가 하는 것이다. 正義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日本帝國主義의 잘못된 植民地 統治에 正面으로 挑戰을 加하고 鬪爭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祖國을 되찾기 위해서 植民地 支配者로부터 買收당함도 없이 自己들의 숭고한 生命을 내던지고 鬪爭을 展開했던 것이다.

日本帝國主義는 地主·兩班과 같은 朝鮮의 支配階層은 어느 程度 장악할 수 있었지만 小農으로 構成된 下層農民들은 좀처럼 장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어느 時代이건 民衆만큼 강한 것이 없다. 또한 民衆만큼 賢명한 것도 없다. 民衆만큼 新鮮하고 純粹한 存在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不正과 不義에 정면으로 挑戰해서 鬪爭해 가는 힘도 強烈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만큼 正義를 호소하는 power도 강렬하였고 의연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民衆은 時代를 움직이는 原動力으로 思慮된다.

당시에 朝鮮 農民 下層民들은 知識은 없어도 살아가는 知惠가 있었고 이 知惠와 풍부한 感性과 正義感으로 時代를 리더하였다.

反面 下層民들을 輕視한 指導者는 最終적으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보면 植民地 時代에 日本帝國主義의 強壓的인 武力行使에도 屈함이 없이 民族의 魂을 불태우면서 日帝와 鬪爭하는 民族魂을 後世에 남겼다는 意味에서 朝鮮 農民 義兵들에 대해서는 높은 歷史的인 평가를 부여해야 된다고 思慮된다.

當時에 朝鮮總督府가 가장 두려워 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村落 農民階層들이었다.

18) 宋建稿, 「日帝支配下の 韓國現代史」 (風濤社 1984年) p. 393 參照.

19) 宋建稿, 前掲書, p. 408 參照.

20) 宋建稿, 前掲書, p. 393 參照.

21) 宋建稿, 前掲書, p. 393.

金融組合 理事 村松保度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面事務所라든가 郡役所라든가 하는 장소에서 선전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官尊民卑라는 것이 지금 보다 더 심했고 暴徒 等도 官吏에 대해서는 매우 敵愾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組合의 精神普及은 官의 힘을 빌리고서는 잘 안되었다. 政府는 돈을 빌려주고 人民을 착취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普通 農民까지도 官을 싫어했다.」²²⁾

여기에서 暴徒란 것은 日本의 官憲과 鬪爭했던 義兵이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농민은 왜 이렇게 “官”을 싫어했는가. 그것은 “官”의 植民地 政策 또는 組合政策에 대하여 不滿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官”은 敵이라고 規定하고 거기에 正面으로 挑戰해서 치열한 鬪爭을 展開하면서 自己들의 正義를 貫徹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官” 말하자면 朝鮮總督府는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와 같은 現狀을 打開하지 않으면 植民地 統治의 成功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朝鮮 植民地統治에 대한 危機意識을 느끼게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朝鮮 金融組合의 現住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伊藤博文과 目賀田種太郎이 合意한 結果, 植民地 統治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또한 日本帝國主義의 國策을 成功裡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朝鮮의 貧窮農民들에게 最小限度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金融組合을 운영해 나갔던 것이다.

當時에 朝鮮 殖産銀行의 會長인 三島太郎은 「金融組合 理事계급들에게 회망한다」라는 講演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即 이 會社에 多數를 點하고 있는 分子들이 健全하지 않으면 도저히 國家가 健全하게 發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露西亞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特히 오늘날 이와 같은 點에 注意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²³⁾

여기에서 多數를 點하고 있는 分子라는 것은 어떤 階層을 意味하는 것일까. 이것은 末端의 下層 農民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一般의 金融組合員으로서 末端의 農民階層을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村落 農民들의 精神的·經濟生活 改善을 해나가지 않게 되면 식민지 통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三島씨는 「서민을 가지고 社會의 無用物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社會의 基礎가 되는 有力한 分子라고 생각합니다.」²⁴⁾ 이것은 이 時代의 狀況을 잘 대변해 주는 發言이라고 할 수 있다.

表面的으로는 下層 農民들이 쓸모없는 것같이 보일런지 모르나 下層 農民들이야말로 社會의 基礎를 形成하는 有力한 階層이라는 것이다. 時代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一言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 「金融組合逸話集」(金融組合叢書 第六輯, 「朝鮮金融組合協會」, 1931年) p. 162.

23) 「三島太郎氏 記念誌」 前掲書, pp. 226-227.

24) 「三島太郎氏 記念誌」 前掲書, p. 226.

下層 農民들 사이에 反日·反帝運動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下層民들에 대한 지대한 關心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時代의 狀況을 잘 파악한 행위라고 思慮된다.

山根讓씨에 의하면 “官”에 의해서 朝鮮全土를 分割해서 金融組合의 區域에 包容하겠다는 것은 金融組合의 活動을 國家的 意圖에 卽應하려고 하는 結果로 보아야 되고 여기에 金融組合이 가지고 있었던 國家的 組織의 性格이 理解되는 바이고 所謂 協同組合이 가지는 강한 自主性과 比較해서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²⁵⁾라고 기술하고 있다.

朝鮮金融組合은 國策線에 따라서 日本帝國主義가 植民地 政策을 實現하는 機關이었다.

또한 金融組合은 組合長과 理事가 共同으로 代表해서 그 事業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組合長은 民選이었고 理事는 官選으로 되어 있는 것이 意義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共同代表制下에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官選理事는 國策이 제시하는 方向을 대단히 重視했고, 同時에 民選組合長은 民意의 所在에 깊이 注意를 기울여야 되었고 上意下達·下意上達이란 新體制下에서 큰 目標을 세우고 共同體制下에서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것이다.²⁶⁾

이러한 데서 朝鮮金融組合의 存在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고 金融組合의 任務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에 金融組合의 組合長들은 全員 韓國人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地主·兩班 階層들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地方에서 農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地方名望家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 地方名望家들은 한자리의 보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직을 제공하고 일본제국주의의 國策方向으로 전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金融組合의 組合長 選舉는 일단은 民選에 의해서 치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官”에 의해 全部 調整되고 있었던 것이다. 명칭은 組合長이었지만 무엇하나 組合長 權限으로 意思決定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 組合長이 獨自의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想像도 하지 못했다.²⁷⁾

모든 것이 官의 法令과 通報에 의해서 事項이 決定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組合이 선거에 의해서 조합장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官” 말하자면 朝鮮總督府의 認可가 나지 않는한 就任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²⁸⁾

25) 山根讓, 前掲書, p. 3.

26) 山根讓, 前掲書, p. 18.

27) 朴福來, 「韓國農業金融史」(『農業協同組合 中央會』 1963年) pp. 33-34 參照.

28) 朴福來, 前掲書, p. 33 參照.

組合員에 의해서 組合長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最終적으로는 朝鮮總督府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任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狀況으로 봐서 名目は 民選이었지만 實際적으로는 官選이었던 것이다.

皇國에 忠誠해서 徹底하게 追從하는 자가 아니면 組合長으로 就任되지 않았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었다.

皇國에 忠誠하여 철저히 追從하는 자가 아니면 組合長으로 就任한다는 것은 어려운 狀況이었다.

V. 結 論

朝鮮金融組合의 特徵의 하나로는 官選主義가 採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官選主義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단지 民選과 官選이 어느 쪽이 組合主義의 精神에 合致되는가에 論議가 있는 것이 아니다.

朝鮮에 있어서는 協同組合 制度가 地方의 第 1線의 政治機關으로서 植民地 支配機構의 末端機能을 수행하려고 利用된 것이고 처음부터 民選이라든가 官選이란 論議를 초월해서 말하자면 官選以外的 길은 있을 수 없다는 데서 問題의 根本이 있었다.²⁹⁾

要컨대, 官選理事는 日本帝國主義가 提示해준 植民地 統治方向에 따라서 朝鮮總督府의 業務를 代行하는 형태로 比較的 優秀한 理事들을 迎入해서 朝鮮農村地域에서 農村統治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日本帝國主義에 철저히 순응해 갔던 조합장들은 주로 어떠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農村地域에 있어서 民意의 所在에 깊은 注意를 기울이면서 下意上達의 役割을 철저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金融組合의 組合長들은 여러階層의 地方名望家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面長出身들이 壓倒적으로 많다.³⁰⁾ 面長制度는 現在에도 持續되고 있으나 日本의 村長보다 農民들에 대한 直接的인 영향력을 많이 發揮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나 그러나 日帝時代에만 하더라도 農民들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朝鮮總督府는 이와 같은 面長外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農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地方 名望家(地主 및 兩班)들을 組合長으로 任命해서 利用하였다. 말하자면 金融組合의 組合長들은 朝鮮 農村의 下層農民들의 動向을 深層部까지 調査·把握해서 日本人 理事들에게 報告하였다.

29) 波形昭一,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의 研究」(『早稻田大學 出版部』 1985年) p. 221.

30)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一潮閣』 1970年) pp. 135-136 參照.

자기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組合員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組合長은 農民偵察隊의 役割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朝鮮總督府의 政策方針을 農民들에게 철저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役割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理事들의 경우에는 朝鮮總督府의 解說者로서 上意下達이란 任務를 부여받고 朝鮮總督府의 農村 政策方針을 實現하기 위해서 組合長들에게 詳細하게 전달하고 組合長들은 農民들에게 이와 같은 內容을 상세하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組合長들은 朝鮮 農村의 民意의 動向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報告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朝鮮總督府의 農民統治構圖는 上意下達·下意上達의 構圖로서 朝鮮 農村의 下層農民들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以上으로,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植民地 統治에 대한 朝鮮金融組合 理事들의 役割과 活動을 통해서 植民地統治의 特質과 性格을 分析해 보았다.

朝鮮의 末端農村地域의 「政治機關」이었던 金融組合理事들의 構成과 活動을 分析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實體를 正統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문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과정의 實體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당시 朝鮮總督府의 下部機關이었던 金融組合理事들의 農民統治戰略에 대한 해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接近을 시도했고 朝鮮金融組合理事들의 活躍을 究明함으로써 植民地統治의 特質과 性格이 어느 정도 解明되었다고 思慮된다.

앞으로의 課題는 金融組合이 실제로 朝鮮農民들에 대해서 金融을 통한 貯蓄과 貸出이 어떠한 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農民生活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에 接近되어야 한다고 思慮된다.